

오늘의 유머

■ 아내와 담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한 밤 중에 집에 들어다쳤다. 남편은 탁자 위에 놓여있는 담배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 "이 담배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 혼란 것들

프랑스인, 영국인, 미국인과 변호사 한 명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다. 한 역을 지나면서 프랑스인이 밖에 있는 걸인에게 가지고 있던 바게트 빵을 모두 주더니 사람들에게 말했다.

"걱정 마요, 우리나라에는 저런 게 남아 돌아서 말이지요." 영국인도 머핀(포장된 빵)을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눠준 뒤 창밖으로 남은 머핀을 던져버렸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저런 게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러자 미국인이 변호사를 창문 밖으로 던지고 한 마디 했다. "우리나라에는 변호사가 남아 돌거든요."

■ 어른들의 예지능력

술 자리에서 두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이는 몇몇의 게 아닌 것 같아. 어른들의 예지능력은 무서울 정도로 뛰어나지." "그게 무슨 소리야?" "예를 들어 볼까? 어렸을 때 '애기는 어떻게 낳아?'하고 물어보면 어른들은 '크면 다 알아!'라고 얘기하곤 하잖아."

■ 썰매

초등학교 선생님이 겨울이 되자 아이들에게 말했다. "어려본 감기 걸리면 큰 일나니까 조심해야 해요. 선생님한테는 일곱 살짜리 조카가 있었는데 썰매를 가지고 눈 속에서 놀다가 폐렴에 걸려 그만 하늘 나라로 가고 말았어요." 잠시 침묵이 계속되더니 뒤쪽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선생님... 그러면 그 썰매는 어떻게 했어요?"

■ 똑똑한 영무새

어떤 사람이 애완동물을 파는 가게에 가서 아름다운 영무새를 발견했다. 그런데 영무새의 왼쪽 발에는 붉은색 리본이, 오른쪽 발에는 녹색 리본이 묶여져 있었다. 그걸 본 손님이 주인에게 물어보았다. "주인장, 도대체 저 영무새에는 왜 붉은색과 녹색 리본이 묶여 있습니까?" 그러자 주인이 뜰내며 말했다. "제가 고도로 훈련시킨 결과 붉은색 리본을 잡아당기면 영어를 하고, 녹색 리본을 잡아당기면 한국말을 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던 손님이 궁금하다는 듯 되물었다. "저기 그러면 두 개의 끈을 동시에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자 영무새가 소리치며 말했다. "그럼 난 이 횃대에서 떨어져, 이 바보야!"

■ 장수 비결

백번째 생일을 맞은 노인에게 한 사람이 물었다. "어르신 장수 비결이 뭐니까?" "응, 매일 밤 9시에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거야. 그게 건강에 좋다고들 하더군." "그것 뿐인가요?" 그러자 잠시 생각하던 노인이 말했다. "참, 타이타닉호를 타고 여행하려다가 취소한 것도 장수 비결이지."

■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의 구분법

우산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비가 내릴 때 머리에 가방을 올리고 천천히 걸어가면 짝퉁, 폼에 안고 달리면 진품.

리빙 센스

피부타입에 따른 클렌징 제품

▷ 피석형 건조한 피부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각질이 생기고 건조해지기도 한다. 수분 공급에 주력하고 클렌징도 촉촉한 제품을 사용한다.

▷ 잡티가 많은 칙칙한 피부

각질이 쌓이고, 잡티가 많으면 피부 전체가 어두워 보이고 메이크업도 잘 받지 않는다. 과도한 피지와 노폐물 제거에 신경을 쓴다. 모공속까지 클렌징해주는 제품을 사용한다.

▷ 뾰루지가 많은 트러블 피부

피부가 민감한 사람일수록 트러블이 생기기 쉽다. 뾰루지는 스트레스나 자외선, 자극에 의해 생기므로 자극이 없는 제품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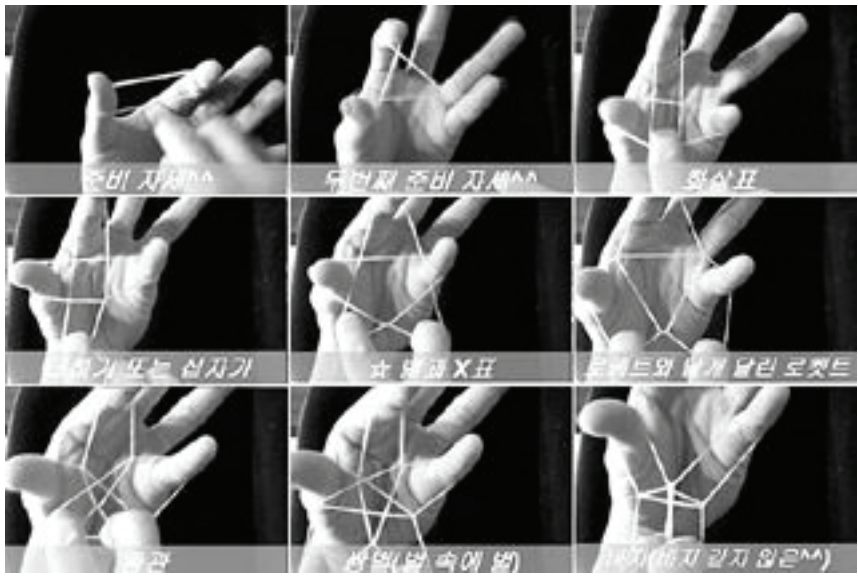
▷ 피지로 번들거리는 피부

번들거림이 심한 피부는 과도한 피지 때문이므로 세안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오일 프리 세안제를 사용하고 클렌징 폼이나 워터 타입이 좋다.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12월 4일(음 11월 7일 戊寅)

Table with 12 colum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12 rows of horoscope text.

시끌벅적 e-스타



추억의 노란색 고무줄 놀이 아시나요?

요즘 아이들에게는 이것저것 탐나는 장난감이 많다. 화려한 질 속에도 살고 있는 플라스틱 인형과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로봇, 화려한 영상과 음악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게임기들도 흔하다. 몇십 년 전 만해도 봉제인형과 조립식 장난감만 있으면 동네 친구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살 수 있었던 그때, 하지만 인형 없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 있다. 바로 고무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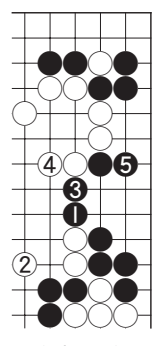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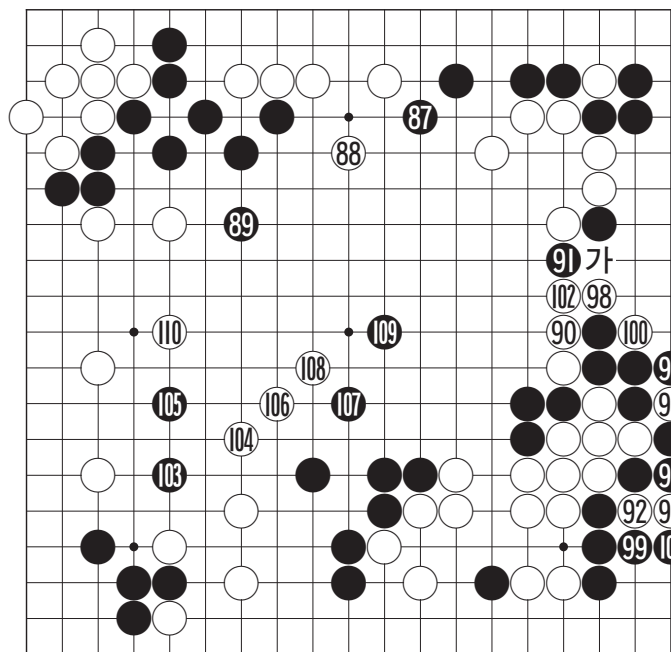
동영상에 등장하는 소재는 간단하다. 노란 고무밴드만 있으면 재미있는 고무줄 놀이가 시작된다. 엄지와 검지 사이에 밴드를 끼워 준비 자세를 취한 뒤 다른 손 검지를 이용해 줄을 잡아 당기면 두 번째 준비 자세가 끝난다. 몇 번 손가락이 휘어 지나가면 화살표가 만들어지고, 다시 화살표는 십자가로 변신한다. 이어 평범한 고무줄은 별이 되고 X표가 되고, 로켓이 된다. 고무줄의 변신은 이에 그치지 않고 왕관, 생벌, 바지, 권총으로까지 이어진다. 손가락이 몇 번 움직였을 뿐인데 노란 고무줄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 소를 펼친다. 이 정도 되면 책상 속에서 노란 고무밴드를 찾는 네티즌이 등장하기 마련. 추억의 고무줄 놀이가 이번 주 네티즌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사했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박지선의 깜박수

여성부 결승전 5보(87~110)
白 조경진 5단 黑 박지선 5단 (경기도) (경기도)



<참고도>

흑 87로 머리를 내민 것이 당연해 보였으나 별 의미없는 수로 이 수로는 88에 두어 중앙을 두텁게 하는 것이 좋았다. 조경진 5단은 장고 끝에 백 90로 밀어갔는데 이 수로는 그냥 '가'로 흑 한점을 잡아야 했다. 그런데 박지선 5단이 백점을 둔답시고 흑 91로 쫓힌 것이 대역수가 되고 만다. 이 수는 다음 백 92부터

아서 자충을 만들고 98로 쫓히는 수를 깜박한 것이다. 조경진 5단이 100까지 선수한 다음 102로 꼭 이어버리자 박지선 5단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한다. 이 결과는 너무나 참담해서 흑 두 점이 힘도 써보지 못하고 잡혀 버렸다. 흑 91로는 '참고도'의 흑 1로 쫓아야 했던 것으로 백은 2로 돌 수밖에 없는데 3이 기분좋은 선수며 5로 내려서 통통한 실리를 챙길 수 있었다. 실전과는 실로 엄청난 차이다. 백 110까지 백이 콧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비독해설위원>

대한주변중사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굿모닝 잉글리쉬 <1203>

What kind of games do you play?

무슨 게임을 하니?

A : Let's play something different for once.
B : Okay, you pick. What kind of games do you play?
A : Trivial Pursuit is my favorite.
B : Well then, Trivial Pursuit it is.

A : 이번에는 다른 놀이를 해보자고.
B : 좋지, 네가 골라봐. 무슨 게임을 하니?
A : 내가 좋아하는 게임은 재치문답 게임이야.
B : 그러면, 그것으로 하자.

- * for once = 이번에는
* pick = 골라 잡다, 기회를 잡다
* Trivial Pursuit = 재치문답 게임
* favorite : 좋아하는 것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오우 니혼고 <1203>

僕のおごりですよ。

제가 한턱 낼게요

A : 一緒に食事でもどうですか。僕のおごりですよ。
B : 本當。じゃ、今度できたヒブシチュのお店に行きましょうよ。
A : いやあ、オさん、グルメですね。かなわないな。

A : 같이 식사어때요? 제가 한턱 낼게요.
B : 정말? 그럼 이번에 생긴 비프스튜 가게에 가요.
A : 이야! 오상, 미식가군요. 못 당하겠는데...

おごり : 한턱 내다
かなわない : 당해 내지 못하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쑹구워 <280>

你的笔在哪儿?

당신의 펜은 어디에 있습니까?

A: 你的笔是不是蓝的?
B: 是啊。
A: 你的笔在哪儿?
B: 在我的书包里。

A: 당신의 펜을 파란색입니까?
B: 맞습니다.
A: 당신의 펜을 어디에 있습니까?
B: 저의 가방 안에 있습니다.

哪儿 [nǎr] 어디에
书包 [shūbāo] 책가방

<광주중국어학원(삼우지구 금호대우A) >
☎ 383-1605

한자 이야기 <920>

暴虎馮河(포호빙하)

해칠 포, 범 호, 탈 빙, 물 하

포호빙하(暴虎馮河)는 맨손으로 범에게 담비고 걸어서 황하를 건넌다는 뜻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모한 용기를 비유한다. 공자의 제자 중 무용(武勇)에 뛰어난 사람은 자로(子路)였다. 그는 공자보다 9살 연하였고, 제자 중에서는 최연장자였다. 공자는 그에게 진정한 용기란 도의(道義)에 따르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경솔한 용기를 교정하고자 하였다. 반면 안회(顔回)는 공자보다 30살이 연하의 제자로 학재(學才)가 뛰어나고 덕행이 높았으나 32세에 죽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공자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고 한다. 어느 날 공자가 안회를 칭찬하기를, '등용되면 포부를 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를 가슴 깊이 간직해 둘 수 있는 사람은 나와 너 두 사람 정도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자로가 은근히 샘이 나서 공자에게 물기를 '선생님, 만약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임할 때 누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하였다. 공자는 굳은 얼굴로 '맨손으로 범에게 담비거나 황하를 걸어서 건너는 것(暴虎馮河)과 같은 헛된 죽음을 후회하지 않을 자와는, 나는 행동들 같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論語, 述而篇) 이는 자로의 경솔한 태도와 민용(蠻勇)을 경계하는 말이었다.

<한여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

Advertisement for DermaPlast skin care products, featuring a woman's face and the text '우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and '더마플라스트 밴드'.